논어 5편 공야장 5장 · 원문·풀이

# 或曰：「雍也，仁而不佞。」子曰：「焉用佞？禦人以口給，屢憎於人。不知其仁；焉用佞？」

독음 · 혹왈 옹야 인이불녕 자왈 언용녕 어인이구급 루증어인 부지기인 언용녕

쉬운 풀이(요약) · 중궁에게 말재주가 부족하다는 평에 공자는 말로 사람을 막으면 오히려 미움을 사니, 아첨하는 말재주가 무슨 필요냐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或 혹 혹 혹 / 曰 가로 왈 / 雍 조화로울 옹 옹 / 也 어조사 야

仁 어질 인 인 / 而 말이을 이 / 不 아닐 불 / 佞 재주 녕 녕

子 아들 자 / 焉 어찌 언 언 / 用 쓸 용 용 / 禦 막을 어 어

人 사람 인 / 以 써 이 이 / 口 입 구 구 / 給 넉넉할 급 급

屢 창 루 루 / 憎 미워할 증 증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知 알 지

其 그 기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